



豚子가라사대... 모든이 피 오증을 보이는데...

‘이대로 돼지나 사람이나, 너나 내나 삼계탕처럼 꼭 익어버리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입추(立秋)가 지나고 말복(末伏)이 지나고 기어코 처서(處暑)마저 지나고 나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스며들면서 이제야 살만한 계절이 되었는데... 정말 거꾸로 매달려도 시계는 돌아간다고 하더니...

오즈음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광고에서 ‘아버지가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라고 엄청 꼬시는군요. 근데 실상 이 세상에 인생을 즐기고 싶지 않은 녀...; 아니 분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더위에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원조 황톳짚질 같은 돈사에서 일해왔던 이 땅의 일만 이천 민주 양돈인이야말로(개중에 자기 마누라에게 돈사 일 몽땅 맡기고 본인은 무슨무슨 대리점에 나가 화투나 만지작거리는 한심한 작자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여름에 살아남은 기념으로 한 일주일 꼭 쉬면 좋겠는데 그러자면 돼지들도 알아서 한 일주일 잠만 자든가 식음을 보류하고 똥도 싸지 말아야 하는데...

예구~ 한여름 밤의 꿈같은 얘기는 그만하고 현실로 돌아가지요. 레드 썬!



황 윤 재 팀장
강원양돈농협 수의팀

또 다른 감염성 비뇨기질환에 주목하라

지난 호에는 단순한 질루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와 유사한 것 같으면서 많이 다른 질환인 방광염과 신우신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질병은 최근에 여름을 보내면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두세 번 관찰된 바 있는데 모두 번식사가 재래식 돈사바닥의 형태로 되어있는 농장에서 발생되었고 3산 이상의 번식돈, 특히 분만이 얼마 남지 않은 임신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고 다분히 개인적인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질병 또한 더운 여름철을 전후해서 자주 보아왔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질병은 급성으로 오는 것이 있고 반면에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염이 꼭 여름철에 일어났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여름철의 높은 습도와 온도, 위생적으로 불량한 돈사바닥의 환경이 질루에 한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 또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의 원인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찌다가 원인부터 말씀드리게 되었지만 이 질병의 증상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크게 급



<표> 감염성 비노기질환의 형태별 특징

급 성 형	만 성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식욕부진, 식욕절제 • 피오줌(피 빛이 흥건한 오줌을 늘 수도 있고, 오줌에 피가 섞이거나 고름이 섞인 이물질을 보일 수도 있다) • 외음부 주변에 이물질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다. • 항생제 등으로 치료효과는 거의 없다. • 교배 후 3주간에 걸릴 확률이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방광염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 식욕을 포함한 일반적인 증상은 거의 없다. • 오줌에 농이 섞여 나오는 것과 외음부에 다소의 분비물이 묻어 있는 정도만 보인다. • 얼핏 보면 질염이나 자궁내막염과 혼동할 수 있다.

성형과 만성형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임상증상을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만일 모돈이 폐사했다면 부검해서 확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돈군 전체를 평가하는 요령은 뇨검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오줌에 농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가의 여부와 함께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해 오줌의 pH(폐하)를 측정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오줌의 산도는 약산성인데(pH7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지요.) 이 숫자가 높아지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질염이나 자궁내막염과는 다소 다른 원인의 방광염

아까 잠깐 본 질병의 원인에 대해 언급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 받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모돈들은 스톨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는데 이들은 사료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저 드러누워서 지내려 하지요. 이러다 보면 배변하는 것도 귀찮아서 열심히 참고 있다가 사료 먹으려 일어날 때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고 덩달아(잘 아시다시피 모돈들은 엄청

나게 물을 먹어야 합니다.) 물 마시려 일어나는 것도 귀찮아서 이것도 사료 먹을 때 같이 하려 하지요. 문제는 방광은 일정 간격으로 비워져야 하는데 이를 비우지 않고 오줌을 참고 물 먹는 것도 참고 있으면 방광은 탁해지거나 염류가 가득한 오줌으로 가득차게 되고 여기에다 각종 오염물질이 역류하거나 교배시 오염물질이 방광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방광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 운이 나빠서 유박테리움(예전엔 코리너박테리움이라 불렀음.) 같은 것이 침입하게 되면 결국 신장염으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법 중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많이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예방적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시설 구조상으로 물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1. 적절한 높이의 급수대(높이 80cm)
2. 적절한 수량(분당 2ℓ 이상 : 현장에서는 니플을 한참 눌러 보아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3. 마실 물에 소금을 0.9% 농도로 해주면

음수량이 늘어난다.

4. 문제가 되는 농장에서는 사료 급여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를 통해서 모돈이 자주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5. 외음부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이유 후 3주간 이내에는 더욱 주의한다. 지난호에 얘기한 것처럼 평사 바닥형태인 경우엔 더욱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똥이 쌓이는 곳은 적어도 약 10cm 정도 낮추는 것이 좋다.
6. 웅돈사를 포함한 번식사 바닥의 배수관 리도 잘해야 한다.(어떤 경우도 돈사 바닥이 축축해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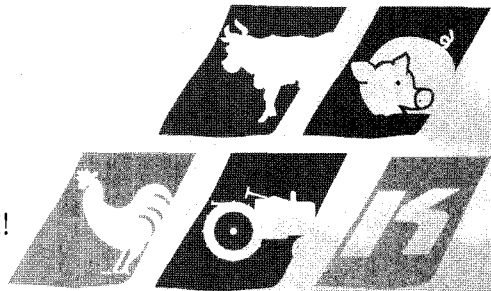
7. 유박테리움이 문제가 되면 교배시의 위생관리에 힘써야 한다. 자연교배든 인공수정이든 교배 시 외음부를 청결하게 해야 하고 비닐장갑, 세척용 물수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8. 포피계실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교배나 정액채취 직전 포피계실을 짜주는 것은 엄청 좋지 않다. 오히려 포피계실에 있던 세균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때문인데 만일 웅돈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이 서면 일정 간격으로 포피내 항생제 주입을 하는 것이 좋다. **양도**

행사안내

KISTOCK 2005

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 2005

성공비즈니스와 축산발전의 미래를 여는 국내유일의 박람회!!
KISTOCK 2005 와 함께 하십시오.



비즈니스 박람회

국내외 15개국 230여개
 업체 600부스 참여
 해외바이어 대거
 시장개척 촉진

체험 박람회

소독설비,
 분뇨처리 시설
 등을 직접체험

참여 박람회

종축경매,
 축산물 시식회,
 학술행사 등에 참여

유성 IC

6Km

엑스포
 공원사거리

사창방향

북대전 IC

대전무역전시관

MBC방향

주최: (사)대한양돈협회(주관단체),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후원: 농림부, 농협중앙회, (사)한국사료협회, 한국마사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화: (02)571-9751~5, (042)365-3000, 019-258-2361

팩스: (02)575-5079